

회당문화축제 울릉대표 '우뚝'

진각종, 체험·봉사·공연으로 주민·관광객 사로잡아



8월8~12일 울릉도 일대에서 열린 제4회 회당문화축제가 지역주민과 어우러진 대중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축제 본행사로 치러진 공연 모습.

올해로 4회를 맞은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울릉도 주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대중문화축제'로 부상해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공연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단조로움을 벗고 체험과 봉사, 전시·공연을 아우른 종합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진화해 오징어·우산국 축제와 더불어 울릉도 3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8월 8~12일 도동항을 비롯해 울릉도 일대에서 열린 제4회 회당문화축제는 이같은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며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회당문화축제의 두드러진 변화는 참가자들의 소망을 담은 연등과 풍등, 염주를 직접 만드는 체험마당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등장한 점

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울릉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에 (사)열린사회 의료봉사단이 도동 여래심인당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치과 내과 안경 신경통증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8월 8~9일 이틀간 진료소를 찾은 주민은 2백 여명에 달했다.

또한 신교도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울릉도 순례, 회당 종조 탄생지 금강연 참배 등의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분리해 주민 중심의 축제로 진행한 점도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밑거름이 됐다.

이와 함께 대중가수 정태춘의 '떠나는 배',

관승의 '천천천', 김국환의 '집시를 깨자',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비롯해 타악 퍼포먼스 공연팀 야단법석의 '난타' 공연에 이은 불꽃놀이, '독도와 우리 역사를 지켜라'는 서원이 담긴 대형 풍등 날리기 등이 도동항 일대에서 열려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울릉초등학교 야외무대에서는 극장 개봉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슈렉2' '투모로우' '달마야 서울가자' 등 3편의 영화가 상영돼 연일 만원을 이뤘다.

지난해 성과 없는 소모적인 행사라는 진각종 내부진단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회당문화축제가 짧은 역사속에도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데에는 종단과 종도 중심의 시각에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가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종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추진했던 통리원 집행부의 강한 의지도 보탬이 됐다.

진각종은 회당문화축제와 함께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 사동리 일대를 종단성지로 탈바꿈시키는 성역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1999년부터 시작된 성역화 불사는 토지 매입 과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진각종은 수련원과 숙박시설 등의 불사를 통해 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육성하고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화사회부장 회성 정사는 "이벤트성 공연에 머물러 축제를 체험과 봉사를 결합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15배 정도 늘어나고 반응이 뜨거워진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꽃단장한 개성 영통사

개성 영통사의 단청을 한 모습이 공개됐다. 영통사는 29개동의 전각이 오관산의 푸르름과 어우러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특히 천태종축의 재로 지원으로 이뤄진 단청은 독특한 문양과 양식을 살린 북쪽의 재현기술에 힘입어 단아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진은 8월 2~4일 단청 마감제 전달을 위해 방북한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단이 촬영했다.

한편 천태종은 8월 23~24일 개성 자남산 려관과 영통사 등지에서 영통사와 대각국사 의천 스님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학자 7명이 나서 각 국의 시각에서 영통사 복원 의미와 의천 스님의 생애·업적을 조명한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9월 1~3일 종도연수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안산 대선사에서 '불기 2548년 하계 종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종단사' '수행자로서의 위' '종단 의제와 법령' 등 강의와 동국대 오윤근 교수의 '유식사상과 법상종' 특강, 종무행정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취임 1개월을 맞은 신인 총무원장 해월 스님이 종단운영 방침과 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도 마련된다.

19일 임시종양대회

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연봉은 8월 19일 오후 3시 부산 초량동 연락 사무소에서 임시종양대회를 개최한다. 10월 17~20일 열리는 연수교육과 행사교육, 금강연단 설치, 기타 종단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051)466-3977

니르바나 봉사 교육

천태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운덕)은 8월 24~26일 여수 장덕사에서 '2004년 제4회 니르바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기본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교육은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행자 소양시험 280명 응시

태고종은 8월 13일 서울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제28기 행자 소양시험을 실시했다. 필기고사와 신체검사, 면접으로 치러진 이번 시험에 응시한 행자는 남행자 216명, 여행자 64명 등 총 280명으로 태고종 사상 최대의 숫자다. 시험결과를 취합해서 합동등도 봉행위원회에서 최종심사에 합격한 행자들만 태고종에서 실시하는 1달간의 합동등도 수계산림에 동참할 수 있다.



여래종 법계고시 통과 60명 품계

한국불교여래종 법계고시위원회(위원장 인왕)는 8월 11~12일 이틀 동안 총본산인 육전 대약사에서 제6회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법계고시는 열반, 독경 등 불교의식과 설법, 강의, 필기고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60여 명의 종단 스님들이 고시를 통과해 품계를 받았다. 여래종은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승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년마다 법계고시를 치르고 있다.

태고종 종정예경실장 상허 스님 총무원 교무국장에 법륜 스님

태고종은 제17세 종정 예초 스님의 9월 6일 취임을 앞두고 종정예경실장에 제주 덕흥사 주지 상허 스님을 임명했다. 또 총무원 교무국장에 대전 현암사 주지 법륜 스님을 발령했다.

신입 종정예경실장 상허 스님은 1957년 북제주 황통사에서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경찰서 경승실장, 이라산유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법륜 스님은 현재 대전동부경찰서 경승, 대전교도소 정신교육 강사, 대전동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천태종 새 스님 23명 수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행자들의 심선계(十善戒) 수계를 위한 산림을 8월 17일 오전 10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연다. 올해 수계대상자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수계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남행자 10명, 여행자 13명 등 총 23명이다.

수계법회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감사원장 정산 스님을 삼사(三師)로, 총무부장 덕수 스님, 교무부장 준광 스님, 재무부장 도재 스님, 교육부장 용암 스님, 사회부장 무인 스님, 규정부장 진덕 스님을 칠증사(七證師)로 진행한다.

한편 천태종은 8월 16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250여 사찰에서 제87회 집신년

재가불자 하안계 결계에 들었다. 천태종 스님들은 재가불자들에 이어 60일간 안거에 들 예정이다. (043)423-7100-8

총화종 세계평화 기원법회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9월 19일 오후 2시 총주사 가금면 탐평리 중앙탑 광장에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1부 대법회와 2부 수륙영산재로 나뉘어 열리는 이날 법회에는 총화종 소속 2백여 사찰에서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세계 전역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총화종 종도와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kumdeung.com

황금연등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크기별 단가
8cm 5천원 / 10.5cm 7천원 / 13cm 1만 8천원 / 20cm 4만원 (수술은 별도)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08염주, 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 108염주 135.000원
▲ 12단주, 손목염주 110.000원	▲ 12단주 85.000원 * 손목염주 38.000원

북한에서 생산되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염주는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목적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종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를 최고의 선물로 평가하시어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등으로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맑고 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7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는 기도 정신이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는 사용할 분만이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임오일 공휴일도 상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총합 743-02-563237 (메금주 정애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 12단주 2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 개인사업자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흥 8/0 406호